

성낙희展 Translation 갤러리 2 2.26~3.28

전시장을 들어서면, 흰 벽을 따라 16점의 그림이 기다다 화색(畫色)을 뿜내면서 악보에 그려진 음표처럼 높낮이를 달리하여 걸려 있다. 각각의 화면에서 공간은 광학적 환영을 통해 구축되고, 물감의 물질성과 화면의 평면성은 붓질의 흔적과 울퉁불퉁한 물감 방울들로 강조된다. 색, 선, 그리고 고면 등 조형요소들은 이렇게 어우러져 숨겨 좋게 조율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뿜어낸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작업을 추상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실 몇몇 작품은 언뜻 컴퓨터 음악재생프로그램의 비탕화면을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음악을 시각화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한편 이 그림들은 성낙희가 좋아하는 탐정소설이나 공상과학소설이 펼쳐지는 심리적 판타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일종의 가상소설로서의 그림'으로, 소설가가 가상의 캐릭터와 이야기 요소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흥미진진한 서사체로 짜가듯, 이 화가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거의 '그림가가 습관'이 되는 단계에까지 진입하고자 한다.

이렇듯 작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간의 모습은 그 특유의 시각언어로 발랄하고 활달하게 옮겨져(Translation) 화면 위에 자리잡는다. 몽글몽글한 덩어리들은 모이다가 흩어지고, 때로는 이

리저리 쏠린다. 번들번들 빛나기도 하고 얼룩덜룩 묻혀 있기도 한 선들은 확 뻗어나가기도 하며, 유연하게 돌면서 이곳저곳을 연결하기도 한다. 색으로 채워진 면들은 앞으로 나오는 척 뒷집지고 물러나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나는 척 다른 요소들의 앞을 가리고 서 있기도 하다. 2007년의 개인전을 통해 내부(Interior)와 어딘가의 사이에서(Tween), 죄고(Clinch), 치솟고(Soar), 이어지며(joint), 압축되고(Packed), 탄력 있는(Elastic) 영역(Range) - 전시제목이었던 'Range'를 제외하면 괄호 안의 단어는 당시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의 제목이다 - 을 보여준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소스(Source), 스트림(Stream), 포털(Portal), 속도(Velocity)가 피어나고(Bloom), 묶이고(Bond), 결합하고(Cohesion), 상승하고(Escalade), 도약하고(Leap), 자리 잡고(Location), 유인하고(Lured), 조율하고(Pitch), 울리고(Resonance), 반향하고(Reverb), 일어나고(Rise), 선회하는(Whirl) - 괄호 안의 단어들은 작가가 붙인 작품제목들로서, 필자 나름대로 본고에 샘플링해본 것이다 - 등등의 것을 보여준다.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작가가 좋아하는 소설 중의 하나다. 이 소설은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일

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어디로 비약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상력이 지면을 중형무진하며 지어내는 이야기로 지극히 발랄하게 점철되어 있다. 비슷하게 발랄한 조형감각이 기본 좋은 라운지 음악의 비트처럼 점점이 만들어내는 울동과 음률은 성낙희의 화면에서 그루비한 시각효과를 자아낸다. 애덤스의 소설제목을 빌리자면, 성낙희의 작업은 '조형 판타지를 믹싱하는 디제이를 위한 안내서'라 할까?

물론 믹싱이라는 표현은 작품의 음악적인 느낌에 지나치게 무게를 준 것 같기도 하다. 작가의 언급을 보자면 오히려 애덤스의 소설 원제목에 포함된 단어 '여행'에도 새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애초에 성낙희는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작업을 하곤 했는데, 우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여행해오던 조형의 은하수, 그 판타지의 여로 중간에 슬쩍 히치하이킹을 하며 올라타 본 셈이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다음 히치하이킹이 가능할 때는 언제쯤일까? 그때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무한한 은하수처럼, 판타지도 무한할까?

김경운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갤러리2 전시장 광경

